

효성, 에어백용 Nylon66 원사 개발

세계 에어백 시장의 95% 차지 ... 2000톤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 기대

효성이 국내 최초로 에어백용 나일론66 원사를 개발했다.

나일론66는 일반 나일론6에 비해 분자구조가 치밀하고 2배 이상의 높은 강도와 내구성 등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지녀 세계 에어백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이어코드, 항공기 탈출용 슬라이드 등에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산업용 특수섬유이다.

효성은 에어백 제조기업의 시험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몇몇 기업들과는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연간 1400톤의 에어백용 원사를 공급하고 직물, 에어백 쿠션 등의 형태로 생산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에어백용 원사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 연간 2000톤 이상(약 3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며 세계시장 규모가 현재 5만8000톤에서 2005년 8만3000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중국을 중심으로 급팽창하고 있고 국내시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 에어백 장착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조만간 에어백 의무장착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여 에어백 원사 시장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12>